

디지털 조력이 국내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정보 활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적취득 유무의 조절효과

서현빈, 박소연*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The Impact of Digital Assistance on Digital Information Use among Domestic Marriage Immigrants: The Moderating Effect of Korean Nationality Acquisition

Hyun-Bin Seo, So-Youn Park*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yongg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디지털 조력이 국내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정보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디지털 조력과 디지털 정보 활용 간의 관계에서 한국국적취득 유무가 가지는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년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데이터에서 만 19세 이상 국내 결혼이민자 중 성실하게 대답한 총 621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디지털 조력은 디지털 정보 활용의 하위 항목인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과 온라인 경제활동 수준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둘째, 디지털 조력이 디지털 정보 활용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력은 한국국적 미취득 집단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내 결혼이민자의 한국국적취득 유무를 고려한 디지털 조력의 필요성을 실천적 함의로 제언할 수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한국 적응과 정착을 위하여 언어적인 제한을 고려하고 한국국적이 없는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지원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별, 연령, 한국어 능력, 한국 거주기간에 따른 국내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능력 차이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analyze the impact of digital assistance on digital information use among married immigrants and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Korean nationa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assistance and digital information use. Moderation effect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data provided by 621 married immigrants aged ≥ 19 who responded to the 2022 Digital Information Gap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 Ou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digital assistance significantly increased the use of social networking services and the level of online economic activity, both subcategories of digital information use. Second, the positive effect of digital assistance on digital information use was greater for those who had not acquired Korean nationalit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digital assistance is necessary for married immigrants. Policies that consider language barriers should be implemented to support the adaptation and settlement of married immigrants in Korea, especially those who do not have Korean nationality. In addition,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gender, ag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d duration of residence in Korea on the digital abilities of married immigrants.

Keywords : Domestic Marriage Immigrants, Digital Assistance, Digital Information Use, Korean Nationality Acquisition, Digital Information Gap Survey

*Corresponding Author : So-Youn Park(Kyonggi Univ.)

email: sypark@kyonggi.ac.kr

Received May 28, 2024

Accepted August 2, 2024

Revised July 10, 2024

Published August 31, 2024

1. 서론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199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국제결혼으로 인해 국내 결혼이민자는 농촌 총각을 장가 보내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 하에 이루어진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인 배우자를 못 만나거나 이혼 경험을 가진 남성,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의 남성들이 아시아권 출신 여성들과 결혼하는 비중이 높아졌다[1].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내 인구감소의 문제는 저조한 국가 생산 가능 인력과 연결되어, 한국은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국제이주민 수용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르렀다[2].

2021년 기준 국내 결혼이민자는 174,122명이며, 다문화 가구원 수가 112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3]. 그러나 국내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 비율은 2021년 기준 37.9%로 매우 낮았고, 2027년까지 정부는 국내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 비율을 47.9%로 높일 계획이다[4]. 이주민의 사회문화 적응은 이주민과 해당 사회의 상호작용에 따른 타협의 과정이지만[5], 국내 결혼이민자는 결혼 후 삶의 전환과 더불어 한국 사회로 이주로 인하여 생활환경 변화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즉, 그들은 언어습득과 한국의 사회문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하여야 하고[6], 취업문제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에 대면한다[7].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자녀교육 및 사회적응으로부터 가정 문제로 연결됨에 따른 이혼율 증가 등은 그들이 가진 가정과 사회문화적 차이에서 바탕으로 하여 많은 문제들로 발현된다[8]. 최근에는 모바일 서비스, 키오스크(kiosk), 각종 민원, 납세 등을 ICT 기반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어 지므로, 결혼이민자들은 ICT를 바탕으로 한 경제·사회에서 새로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9].

한편, 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동화(assimilation) 및 통합(integration)되기 위하여 한국 사회의 디지털 문화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기술은 이민자들에게 주류사회에 대한 접근성과 적응을 지원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10]. Yi 등[11]도 결혼이민자가 온라인, 오프라인, 디지털, 아날로그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들의 디지털 적응 수준을 높이는 것은 전반적으로 한국사회의 적응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한다. 따라서 국내 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기 위한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디지털 정보의 활용이다.

Lee[12]는 결혼이민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으로 정

보 획득, 물품구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카페나 SNS를 통하여 다른 결혼이민자들 소통하여 한국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주류사회에 통합 혹은 동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hin & Eom[13]도 한국 사회에 이주한 결혼이민자들은 주류사회에 성공적인 적응과 정착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할 것으로 보았다. 결혼이민자들은 SNS를 바탕으로 다른 결혼이민자들과 소통할 수 있으며,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에 관한 정보를 검색 및 일자리를 탐색하는 활동이 가능하다.

반대로 인터넷 이용 활동이 소모적인 활동에 집중하거나 인터넷 이용 활동이 제한되면 이민자들은 주류사회로부터 분리되거나 주변화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진다[12]. 이렇게 활용할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은 문화, 경제, 사회적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낮은 참여도와 더불어 그만큼 삶의 영역에서 불편을 감수할 것이다[14].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고령층[15], 장애인[16]에 대한 디지털 정보 활용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지만, 결혼이민자들의 디지털 정보 활용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과 더불어 해당 주제에 대한 공백이 존재한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국내 결혼이민자에 대한 디지털 정보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소수이지만 국내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정보 활용을 향상시키는 요인을 찾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13]. 특히 국내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정보 활용을 높이는 요인 중에 디지털 조력의 효과가 의미 있음이 선행연구 결과로 밝혀졌다.

Ko[14]에 따르면, 디지털 조력을 고도로 활용하는 집단이 디지털 활용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다양한 유형의 조력자를 빈번하고 적재적소에 활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중간 정도로 활용하는 집단은 평균 이상으로 모든 조력자 유형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 저조하게 활용하는 집단은 평균 이하로 가족이나 서비스 센터 등의 전문 인력에 의해서만 문제를 해결한다고 제시하였다. Oh 등[6]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법을 학습하고 활용하는 것이라는 정보이용성이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지원체계 중 이웃의 디지털 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디지털 조력의 개념에 관하여 유사한 맥락을 가지는 사회적 지지나 사회적 자본이 정서적 측면과 익숙하지 못한 환경, 구직활동, 거주지 검색 등의 정보적 측면에서 이주자들이 대면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변수로 활용되기도 한다[9,15].

하지만 국내 결혼이민자의 한국국적취득 여부를 고려

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황이며, 한국국적취득자의 경우 미취득자에 비해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지원체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Kim 등[16]은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는 국적 미취득한 결혼이민자의 집단에 비하여 더 적극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가질 뿐만 아니라, 투표와 같은 사회참여 활동을 더 많이 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민자의 사회활동은 그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이며, 그러한 활동을 통해 국적 또는 영주권 취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다. 이민자는 그 사회의 주민들과 맺는 사회적 관계가 많을수록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17]. 한국국적취득 여부는 사회적 관계와 연관되며, 적응과도 연결된다고 보여진다. Kim & Kim[18]에 따르면, 이주민에게 필요한 고용, 교육, 가족 등의 다양한 정보는 각 부처마다 정보가 분절되어 있고, 특정 정보의 경우에는 한국어로만 제공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국민들과 결혼이민자 간에 정보격차가 존재한다고 보여진다. 다른 연구에서도 결혼이민자들을 조사한 결과에서 결혼이민자라는 점과 더불어 배우자의 직업, 연령, 학력 등도 정보격차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19]. 또한, 결혼이민자들에게 있어 디지털 정보격차가 생활적응으로 이어진다고 밝힌 연구결과를 통해 그들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11].

한국 국적의 취득은 단순히 한국이라는 국적이 생긴다는 점 외에도 다양한 이점을 가진다. 특히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인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고[20],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면 직업훈련 참여가 어렵다고 보고되고 있다[21]. 반면에, 한국 거주기간과 국적취득 여부는 한국 문화적응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22]. 다른 연구에서는 국적취득 여부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달라지는 결과로 나타나, 국적을 취득하면 적응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아진다고 보고했다[23].

추가적으로 한국국적취득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관계는 거의 연구되어 있지 않다. Shin & Eom[13]의 연구에서는 국적취득 여부가 인터넷 이용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하고 분석한 결과, 국적취득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이민자의 국적취득 여부는 이들의 다양한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한 바[16,24], 본 연구에서는 국적취득 여부가 디지털 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이를 종합할 때, 디지털 리터러시와 적응, 국적취득

여부와 사회적응, 국적취득 여부와 사회교육 진입장벽 등의 다양한 활동에 영향 있음과 함께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디지털 조력이 국내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정보 활용에 미치는 효과는 한국국적취득 여부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조력과 디지털 정보 활용과의 관계에서 한국국적취득 여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실제로 정부기관에서는 국내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한국생활 어려움을 2021년 기준 62.1%로 제시하였고, 결혼이민자 초기 적응 지원과 한국 생활 정보제공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조력과 디지털 정보 활용과의 관계에서 기존에 많이 다루지 않았던 한국국적취득 여부를 조절변수로 고려하여 결혼이민자 가정의 디지털 정보 활용을 높이기 위한 개별화된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디지털 조력이 국내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정보 활용에 미치는 효과가 한국국적취득 유무에 따라 조절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Fig. 1)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연령, 성별, 최종학력, 출신국가, 한국 거주기간, 기술적 자기효능감을 설정하였고, 정보역량, 정보접근의 경우에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논했던 정보격차와 관련한 변수를 활용하였다[13,1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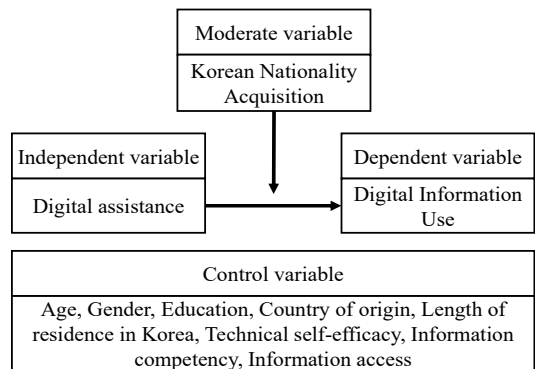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연구가설 1. 디지털 조력이 많을수록 국내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정보 활용은 높아질 것이다.

연구가설 2. 한국국적취득 유무는 디지털 조력과 국내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정보 활용 사이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2.2 자료수집 및 분석대상

본 연구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실시한 2022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26]. 이 조사는 2002년부터 연간 단위 취약계층별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한 패널조사로 이 자료 가운데 결혼이민자 자료는 만 18세부터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며, 성별·연령·출신국적·권역별로 비례 할당표본추출을 통한 700개 사례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민자 700명 중 모든 설문 항목에 성실하게 대답한 총 621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결측값 처리를 위해 완전제거법(Listwise) 기법을 사용하였다.

2.3 변수구성 및 측정방법

2.3.1 종속변수: 디지털 정보 활용

디지털 정보 활용 척도는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색·이메일 사용(8문항), 사회관계서비스 사용(8문항), 온라인 경제활동(8문항)이라는 3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 정보 활용을 측정하는 문항은 총 24개로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 정보 활용은 총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검색·이메일 사용은 4가지 종류의 콘텐츠(정보 및 뉴스, 이메일, 미디어, 교육)에 대하여 PC와 스마트 기기 이용 여부를, 사회관계서비스 사용은 4가지 종류(SNS, 인스턴트 메신저, 개인블로그, 커뮤니티)에 대하여 PC와 스마트 기기 이용 여부를, 온라인 경제활동은 4가지 서비스(생활정보, 전자상거래, 금융거래, 공공)에 대하여 PC와 스마트기기 이용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각각의 문항을 1점(전혀 이용 안한다)부터 4점(자주 이용한다)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의 평균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디지털 정보 활용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정보 활용의 신뢰도는 '검색·이메일콘텐츠'사용의 Cronbach's alpha는 .85, '사회관계서비스'사용의 Cronbach's alpha는 .85, '온라인경제활동'의 Cronbach's alpha는 .91, 디지털 정보 활용 전체의 Cronbach's alpha는

.9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3.2 독립변수: 디지털 조력

디지털 조력을 측정하는 문항은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 친구, 직장 동료나 지인, 전문 인력의 조력 점수의 평균으로 디지털 조력을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장애인, 고령층,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조력을 측정하기 위한 용도로 많은 연구에서 최근까지 사용되었다[9,27-29]. 본 연구에선 국내 결혼이민자가 가족/친구/직장/전문기관 등에 의해 디지털 조력을 얼마만큼 받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척도의 평정은 Likert 4점(1=전혀 그렇지 않다 ~ 4점=매우 그렇다)로 값이 높을수록 디지털 조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분석을 위해 신뢰도를 측정된 결과 Cronbach's alpha 는 .61로 측정되었다.

2.3.3 조절변수: 한국국적취득 유무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한국국적취득 유무는 한국 국적이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1,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0으로 코딩하여 측정하였다.

2.3.4 통제변수

통제변수로 포함된 변수는 성별, 연령, 최종학력, 출신국가, 한국 거주기간, 기술적 자기효능감, 정보접근, 정보역량 등이다. 성별은 여자(0), 남자(1), 연령은 만 나이의 연속변수로 투입하였다. 최종학력은 중졸이하(1), 고졸(2), 대졸(3)로 변환하여 연속변수로 가정하여 사용하였다. 출신국가는 (1) 동북아(한국, 조선족, 대만, 일본, 몽골), (2) 동남아(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3) 백인국가(미국, 러시아), (4) 기타/기타아시아 등으로 변환하여 동남아를 기준집단으로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한국 거주기간은 (1) 0-5년, (2) 6-10년, (3) 11-15년, (4) 16-20년, (5) 21-39년으로 변환하여 연속변수로 투입하였다. 기술적 자기효능감은 '디지털기기를 배우는 데 자신이 있다.', '디지털기기를 활용하는 데 자신이 있다.', '디지털 기기의 사용방법을 빠르게 알아낼 수 있다.', '디지털 기기를 더 많이 이용하고 싶다.' 등 Likert 4점(1=전혀 그렇지 않다 ~ 4점=매우 그렇다)으로 4문항을 산술 평균하여 투입하였으며, Cronbach's alpha는 .87로 나타났다. 정보접근은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휴대전화, 스마트패드, 스마트 주변기기 이용 여부를 총 합산하여 투입하였으며, 정보역량은 PC나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및 스마트패드 등)를 이용한 다양한 활동 가능(예, 스마트 기기로 앱을 설치하거나 삭제 또는 업데이트 등)을 묻는 Likert 5점(1=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의 12가지 문항에 대한 산술평균으로 투입하였으며, Cronbach's alpha는 .95로 나타났다.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과 Process macro 4.1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한국국적취득 유무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 및 주요 변인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둘째, 독립변수인 디지털 조력이 디지털 정보 활용에 미치는 주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디지털 조력과 디지털 정보 활용의 관계에서 한국국적취득 유무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가 제안한 Process macro 1번 모델을 사용하였다[30]. 이 모델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인 디지털 조력, 조절변수인 한국국적취득 유무, 통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평균중심화하여 분석하였다. 이 모델

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곱한 상호작용항을 자동적으로 생성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하며, 상호작용항으로 인한 R² 변화를 검증해준다[30]. 조절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의 표본 수는 5,000개로 설정하였다. 상기 통계분석은 유의수준 5%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3.1.1 한국국적취득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한국국적취득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차분석 결과, 한국국적취득 유무에 따라 성별, 연령, 최종학력, 한국 거주기간 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성별의 경우 여성은 한국국적 미취득 비율이 24.3%로 남성취득 비율(16.5%)에 비해 더 높았다. 연령은 '19-29'세가 한국국적 미취득 비율이 30.8%로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국적 취득 비율은 '40-49세'가 41.7%로 가장 높게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Korean nationality acquisition (n=621)

Variables	Total	Korean nationality		χ^2	
		Non-acquired (n=276)	Acquired (n=345)		
Gender	Female	497(80)	209(75.7)	288(83.5)	5.768*
	Male	124(20)	67(24.3)	57(16.5)	
Age	19-29	127(20.5)	85(30.8)	42(12.2)	46.895***
	30-39	264(42.5)	122(44.2)	142(41.2)	
	40-49	209(33.7)	65(23.6)	144(41.7)	
	Over 50s	21(3.4)	4(1.4)	17(4.9)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 or lower	98(15.8)	30(10.9)	68(19.7)	9.312*
	High school graduate	336(54.1)	161(58.3)	175(50.7)	
	College graduate or higher	187(30.1)	85(30.8)	102(29.6)	
Country of origin	Northeast Asia(Han Chinese/Korean/Chinese/Taiwan/Japan/Mongolia)	239(38.5)	95(34.4)	144(41.7)	6.761
	Southeast Asia(Vietnam/Philippines/Thailand/Indonesia)	262(42.2)	116(42.0)	146(42.3)	
	USA/Russia	47(7.6)	25(9.1)	22(6.4)	
	Others	73(11.8)	40(14.5)	33(9.6)	
Length of residence in Korea	0-5 years	158(25.4)	123(44.6)	35(10.1)	145.476***
	6-10 years	225(36.2)	108(39.1)	117(33.9)	
	11-15 years	132(21.3)	37(13.4)	95(27.5)	
	16-20 years	57(9.2)	5(1.8)	52(15.1)	
	21-39 years	49(7.9)	3(1.1)	46(13.3)	

p<.05; *** p<.001

Table 2. Digital assistance, technical self-efficacy, information access, and information competency level according to Korean nationality (n=621)

Variables	Total				Non-acquired (n=276)		Acquired (n=345)		Differences	t
	Mean	SD	Skew.	Kurt.	Mean	SD	Mean	SD		
Digital assistance	2.711	0.526	0.137	0.128	2.743	0.513	2.686	0.536	0.057	1.331
Technical self-efficacy	2.652	0.615	-0.335	-0.058	2.798	0.591	2.536	0.609	0.263	5.409***
Information competency	3.004	0.778	-0.118	-0.331	3.056	0.790	2.963	0.767	0.093	1.488
Information access	2.230	0.903	0.860	0.983	2.130	0.856	2.310	0.934	-0.180	-2.497*

*p<.05; ***p<.001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중졸이하’인 경우가 한국국적 취득 비율이 19.7%로 ‘중졸이하’의 한국국적 미취득 비율인 10.9%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 거주 기간이 ‘0-5년’인 경우 한국국적 미취득 비율이 44.6%로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난 반면 한국 거주기간이 ‘16-20년’과 ‘21-39년’인 경우 한국국적 미취득 비율(약 1%대)보다 취득 비율(약 10%대 중반)이 월등히 더 높았다(Table 1).

3.1.2 한국국적취득 유무에 따른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한국국적취득 유무와 주요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독립표본 t검정 결과, 한국국적취득 유무에 따라 기술적 자기효능감과 정보접근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한국국적 미취득자가 취득자에 비해 기술적 자기효능감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정보접근 수준은 한국국적 취득자가 미취득자에 비해 더 높았다. 한편, 디지털 조력과 정보역량 수준은 한국국적취득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디지털 조력, 기술적 자기효능감, 정보역량, 정보접근 등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는 절댓값 3 이하, 첨도는 절댓값 10 이하로 나타나서 정규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한국국적취득 유무와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독립표본 t검정 결과, 디지털 정보 활용의

종류 가운데 사회관계서비스 사용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3.469, p<.01), 한국국적 미취득자가 취득자에 비해 사회관계서비스 사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색·이메일콘텐츠 사용이나 온라인경제활동 수준의 경우 한국국적취득 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검색·이메일 콘텐츠, 사회관계서비스, 온라인경제활동 등의 디지털 정보 활용 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는 절댓값 3 이하, 첨도는 절댓값 10 이하로 나타나서 정규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2 주효과 검증

디지털 정보 활용 종류별 영향 요인을 검증하였다. 디지털 정보 활용 종류인 ‘검색·이메일콘텐츠’, ‘사회관계서비스’, ‘온라인경제활동’ 등에 대한 활용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모형 모두 회귀모형이 적합했으며, 분산팽창지수(VIF) 역시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Durbin-Watson 통계량 또한 2에 가깝게 나타나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었다.

먼저, 검색·이메일콘텐츠 활용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독립변수인 디지털 조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진 않았고 통제변수 중에는 연령, 최종학력, 기술적 자기효능감, 정보역량, 정보접근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igital information use depending on whether or not one has acquired Korean nationality acquisition (n=621)

Variables	Total				Non-acquired (n=276)		Acquired (n=345)		Differences	t
	Mean	SD	Skew.	Kurt.	Mean	SD	Mean	SD		
Searching email contents	2.133	0.628	0.396	-0.636	2.148	0.653	2.121	0.608	0.027	0.541
Social relations service	1.981	0.577	0.718	-0.325	2.071	0.618	1.908	0.532	0.163	3.469**
Online economic activity	1.689	0.681	0.817	-0.461	1.743	0.744	1.646	0.623	0.097	1.735

**p<.0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digital information use

(n=621)

Variables	Searching email contents		Social relations service		Online economic activity	
	β	t	β	t	β	t
Male(ref=Female)	-.034	-1.11	.048	.069	-.029	-.842
Age	-.098	-2.05*	.004	-.691	.129	2.41*
Education	.114	3.40**	.032	2.77**	.140	3.74***
Country(ref=Southeast Asia)						
Northeast Asia	.054	1.51	.047	.640	-.025	-.614
USA/Russia	.045	1.43	.076	1.61	.054	1.53
Other countries	.018	0.58	.059	-.019	.025	.740
Korean nationality acquired(ref=non-acquired)	.059	1.83	.041	-.897	.011	.300
Length of residence in Korea	-.035	-.742	.004	-2.11*	-.133	-2.56*
Technical self-efficacy	.075	2.21*	.101	2.66**	.073	1.88
Information competency	.460	12.40***	.416	10.27***	.440	10.65***
Information access	.224	6.81***	.116	3.23**	.070	1.91
Digital assistance	.028	.985	.091	2.91**	.074	2.33*
F	57.598***		40.179***		36.582***	
R ² (adj R ²)	.532(.523)		.442(.431)		.419(.408)	
VIF	1.061~2.967		1.061~2.967		1.061~2.967	

*p<.05; **p<.01; ***p<.001

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beta=-.098$, $p<.05$), 학력이 높을수록($\beta=.114$, $p<.01$), 기술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beta=.075$, $p<.05$), 정보역량($\beta=.460$, $p<.001$)과 정보접근($\beta=.224$, $p<.001$) 수준이 높을수록 검색·이메일콘텐츠 활용도는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변수의 검색·이메일콘텐츠 활용도에 대한 설명력은 약 52.3%였다.

사회관계서비스 활용 정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독립변수인 디지털 조력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관계서비스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91$, $p<.01$). 통제변수 중에는 최종학력, 한국 거주기간, 기술적 자기효능감, 정보역량, 정보접근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다시 말해, 학력이 높을수록($\beta=.032$, $p<.01$), 한국 거주기간이 길수록($\beta=.004$, $p<.05$), 기술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beta=.101$, $p<.01$), 정보역량($\beta=.416$, $p<.001$)과 정보접근($\beta=.116$, $p<.001$)이 높을수록 사회관계서비스 활용 정도는 증가하였다. 이들 변수의 사회관계서비스 활용 정도에 대한 설명력은 약 43.1%였다. 온라인경제활동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독립변수인 디지털 조력과 통제변수인 연령, 최종학력, 한국 거주기간, 정보역량 등이 확인되었다. 먼저, 디지털 조력 수준이 높을수록 온라인 경제활동 정도는 점점 증가하였고($\beta=.074$, $p<.05$) 연령이 높을수록($\beta=.129$, $p<.05$), 학력이 높을수록($\beta=.140$, $p<.001$), 한국 거주기간이 짧을수록($\beta=-.133$, $p<.05$), 정보역량(β

$=.440$, $p<.001$)이 높을수록 온라인경제활동 정도가 증가한다고 나타났다. 이들 변수의 온라인경제활동 정도에 대한 설명력은 약 40.8%로 나타났다(Table 4).

3.3 조절효과 검증 : 한국국적취득 유무의 조절효과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절효과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즉, 디지털 조력이 국내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한국국적취득 유무가 이러한 관계를 조절하는지 검증하였다. 모형의 설명력은 56.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60.410$, $p<.001$)(Table 5).

독립변수인 디지털 조력은 디지털 정보 활용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170$, $p<.001$) 조절변수인 한국국적취득 유무 역시 디지털 정보 활용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457$, $p<.01$). 상호작용항(디지털 조력 × 한국국적취득 유무)이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B=-.160$, $p<.01$).

통제변수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B=.109$, $p<.001$), 기술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B=.083$, $p<.01$), 정보접근($B=.094$, $p<.001$)과 정보역량($B=.355$, $p<.001$)이 높을수록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Korean nationality acquisition

Variable		B	SE	t
(constant)		-.225	.172	-1.305
Independent variable	Digital assistance(X)	.170	.046	3.726***
Moderate variable	Korean nationality acquisition(Z)	.457	.167	2.741**
Interaction variable	X×Z	-.160	.059	-2.698**
Control variable	Male(ref=Female)	.026	.042	.627
	Age	.001	.003	.273
	Education	.109	.028	3.929***
	Northeast Asia(ref=Southeast Asia)	.018	.041	.437
	USA/Russia(ref=Southeast Asia)	.109	.066	1.657
	Other countries(ref=Southeast Asia)	.031	.051	.610
	Length of residence in Korea	-.010	.004	-2.568
	Technical self-efficacy	.083	.031	2.669**
	Information access	.094	.020	4.706***
Information competency		.355	.026	13.622***
F			60.410***	
R ²			.564	

p<.05; **p<.01; ***p<.001

한국국적취득 유무의 상호작용항 투입으로 인한 R² 변화량은 5.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7.279, p<.01)(Table 6).

Table 6. R² change due to input of interaction term

Interaction	ΔR ²	F
Digital assistance×Korean Nationality Acquisition	.005	7.279**

**p<.01

이러한 조절효과와 구체적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국적취득 유무별로 집단을 구분하여 조건부 효과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 조력이 디지털 정보 활용에 미치는 정적(+) 효과는 한국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게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170, p<.001), 한국국적취득 결혼이민자에게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010, p>.05)(Table 7).

즉, 디지털 조력이 디지털 정보 활용에 미치는 정적(+)인 효과는 한국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게서만 나타났다. 이를 도식화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Table 7. Conditional effect size significance

Korean nationality	Effect	SE	t	LLCI	ULCI
Non-acquired	.170	.046	3.726***	.080	.259
Acquired	.010	.039	.247	-.066	.08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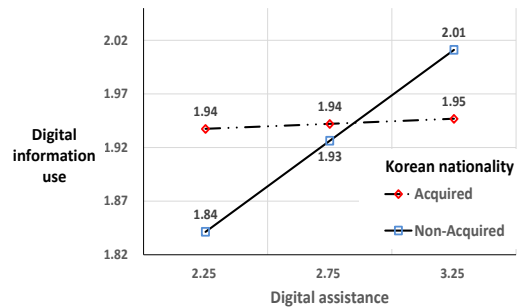


Fig. 2. Graph of the moderating effect of Korean nationality acquisition

4. 결론

본 연구는 디지털 조력이 국내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정보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한국국적취득 유무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의 주효과 검증을 통해 디지털 조력은 디지털 정보 활용의 항목인 사회관계서비스 이용과 온라인경제활동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14,31,32], 국내 결혼이민자를 위한 디지털 조력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내 결혼이민자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민자 네트워크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33]. 하지만, 현재의 디지털 조력 정책만으로는 결혼이민자들이 적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은 현재 결혼이민자들이 '사회관계서비스 이용'과 '온라인경제활동'의 평균점수가 낮게 응답했다는 점에서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도 결혼이민자의 어려움은 언어에서 비롯되며[34], 언어의 활용은 디지털 정보 활용과도 직결된다[35].

둘째, 한국국적취득 유무는 디지털 조력이 디지털 정보 활용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조력이 디지털 정보 활용에 미치는 정적(+인 효과는 한국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게서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로서 한국 국적이 없는 국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디지털 조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재 시행되는 이민자정책은 실제 국적에 따라서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36]. 이는 연구결과에서 국적득에 따라 디지털 조력이 디지털 정보 활용에 미치지 못하는 조절효과가 나타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처럼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의 경우 언어적 어려움과 사회적 네트워킹의 제한으로 인해 정보 접근이 더욱 제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한국국적취득 여부를 고려하여 다문화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가령, 본 연구에서 한국국적 미취득 집단의 경우에만 조절효과가 유의하다고 나타났다.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데에 있어 통제변수로 한국 거주기간을 활용하였음에도 국적 미취득자의 경우에만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한국 거주기간보다도 국적 취득여부가 더 중요함을 의미한다.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디지털 조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자 중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국적취득 비중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30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한

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이 초기 결혼이민자들에게 디지털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다면 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기적응프로그램에서 강사 외에도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이와 관련된 사례연구에서도 멘토 교육이 유용하나, 소통 시간이 짧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확대의 필요성을 보여준다[37].

본 연구는 디지털 조력이 디지털 정보 활용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한국국적취득 유무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그동안 관심이 부족했던 한국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결혼이민자를 남녀 구분 없이 하나의 집단으로 분석하였는데, 남자와 여자 간에는 디지털 조력과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남녀 결혼이민자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제안한다. 둘째, 한국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거주기간과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다[4]. 한국 사회에서 오래 거주하여 한국에 적응할수록 디지털 문화에 익숙해지고 디지털 조력 수준과 디지털 역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연령과 한국 거주기간을 고려하여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정보 활용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을 연구모형에 포함하지 않았다. 디지털 활용 능력은 한국어 이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한국어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References

- [1] H. J. Chi, Determinants of naturalization among marriage migrants to South Korea,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2016. DOI: <https://doi.org/10.23170/snu.00000004642.11032.0000349>
- [2] S. W. Lee, "Demographic Change and National Security: A Look at Korea's Population Crisis and International Migration Problems", Situation and policy, No.364, pp.1-5, 2023.
- [3]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Status of foreign residents in local governments in 2021, 2021. [cited 2022 October 31], Available From: https://www.mois.go.kr/i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4&nttId=96092 (accessed Dec. 20, 2023)

- [4]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4th Multicultural Family Policy Basic Plan (draft)(2023~2027), 2023. [cited 2023 May 3], Available From: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956 (accessed Dec. 20, 2023)
- [5] C. Ward, A. R. Deuba,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Revisited",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30, No.4, pp.422-444, 1999.
DOI: <https://doi.org/10.1177/0022022199030004003>
- [6] J. W. Oh, J. H. Lee, Y. H. Yeo, "The Effects of Marriage Migrants' Digital Support System on Information Utilization Attitude and Performance - Focusing on Regional Comparisons -",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70, No.3, pp.39-67, 2023.
DOI: <https://doi.org/10.16975/kifsw.2023.70.3.39>
- [7] S. A. Bang, "A Study on the Computer Use Policy for the Digital Divide of Marriage Immigrants", 2019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Winter Conference Proceedings, Vol.27, No.1, pp.181-184, 2019.
- [8] S. Y. Lee, "Network Analysis of Married Immigrants: Focusing on Gwangju and Jeonnam Area", *Multiculture & Peace*, Vol.9, No.1, pp.42-65, 2015.
DOI: <https://doi.org/10.22446/mnpisk.2015.9.1.003>
- [9] D. W. Heo, "A study on the multi-level digital literacy of marriage immigrant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digital helpers",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Winter Conference Proceedings*, Vol.2020, pp.1-20, 2020. [cited 2020 December 3], Available From: <https://kaps.or.kr/?p=29&page=24&viewMode=view&reqIdx=2112020211275336> (accessed Dec. 27, 2023)
- [10] N. Elias, D. Lemish, "Spinning the Web of Identity: the Roles of the Internet in the Lives of Immigrant Adolescents", *New Media And Society*, Vol.11, No.4, pp.533-551, 2009.
DOI: <https://doi.org/10.1177/1461444809102959>
- [11] M. S. Yi, D. W. Kim, Y. M. Cho, "The Effects of Marriage Immigrants' Digital Adaptation on Social Adaptation in Korea",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Vol.31, No.2, pp.23-61, 2020.
DOI: <https://doi.org/10.53865/KSPA.2020.08.31.2.23>
- [12] H. J. Lee, "The Mobile Digital Divide and Assimilation of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Focused on the Second-level Digital Divide", *The Korea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Vol.28, No.1, pp.223-248, 2019.
DOI: <https://doi.org/10.33900/KAPS.2019.28.1.8>
- [13] S. S. Shin, S. J. Eom, "A Study on Influencing Factors on Mobile Internet Use of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Vol.22, No.2, pp.73-109, 2019.
DOI: <https://doi.org/10.22896/karis.2019.22.2.004>
- [14] M. J. Ko, "Classification of the Usage of Digital Supporters in Marriage Migrant Females and the Comparison of Their Characteristics", *The Korean Society of Culture and Convergence*, Vol.45, No.5, pp.389-402, 31-May-2023.
DOI: <https://doi.org/10.33645/cnc.2023.05.45.05.389>
- [15] A. Chib, H. A. Wilkin, S. R. M. Hua, "International migrant workers' use of mobile phones to seek social support in Singapore", *Information Technologies &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9, No.4, pp.1-19, 2013. [cited 2013], Available From: <https://itidjournal.org/index.php/itid/article/view/1122.html> (accessed Dec. 31, 2023)
- [16] S. J. Kim, D. G. Hyun, H. J. Kim, J. H. Lee, "A Study of the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for Marriage Immigrants on Substantive Citizenship: Focusing on Obtaining their Korean Nationality",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35, No.1, pp.391-426, 2015.
DOI: <https://doi.org/10.15709/hswr.2015.35.1.391>
- [17] M. P. Vink, T. Prokic-Breuer, J. Dronkers, "Immigrant naturalization in the context of institutional diversity: policy matters, but to whom?", *International Migration*, Vol.51, No.5, pp.1-20, 2013.
DOI: <https://doi.org/10.1111/imig.12106>
- [18] G. H. Kim, Y. S. Kim, "A Case Study on the Social Welfare in the Life Area of Marriage Immigrant Women", *PNU Journals of Women's Studies*, Vol.28, No.1, pp.155-184.
DOI: <https://doi.org/10.22772/pnujws.28.1.201804.155>
- [19] K. W. Im, "Analysis of the Difference of the Female Marriage Migrants' Cognition on the Perspective of the Digital Divide", *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 Vol.13, No.3, pp.281-308, 2013. [cited 2014 January 8], Available From: <http://www.giapa.or.kr/technote7/board.php?board=intro51&page=20&command=body&no=438> (accessed Dec. 31, 2023)
- [20] Y. S. Kim, A Study on Participation in Social Integration Program of Marriage Immigrants for Acquisition of Nationality, Master's thesis, Gongju National University, Gongju, Korea, 2021.
- [21] Y. H. Oh, I. G. Kang, H. H. Yoon, T. G. Yoo, J. W. Kim, Analysis of the social integration effect of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or vulnerable groups II,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2010.
- [22] J. H. Song, T. Y. Lee, "A Study on the Determinant Factors of the Acculturation of Female Immigrants by Marriage", *Social Welfare Policy*, Vol.41, No.1, pp.241-266, 2014.
DOI: <https://doi.org/10.15855/swp.2014.41.1.241>
- [23] H. W. Lee, H. C. Song, "The Study of Social support for immigrant women in multicultural families Impact on the couple stress adaptation and acculturation", *Korean Review of Corporation Management*, Vol.6, No.2, pp.35-59, 2015.
DOI: <https://dx.doi.org/10.20434/krmc.2015.08.6.2.35>
- [24] S. H. Cho, S. J. Byoun, The Influence of Human Capital and Korean Life Factors on employment of Female Marriage Migrants in Korea, *Quarterly Journal*

- of Labor Policy, Vol.15, No.2, pp.25-55.
DOI: <https://doi.org/10.22914/jlp.2015.15.2.002>
- [25] S. S. Jang, J. H. Lee, "Information Gap and Life Satisfaction of Married Immigra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Vol.31, No.2, pp.176-194. [cited 2023 may]. Available From: <https://smihss.jams.or.kr/po/volisse/sjPubsArtiPopView.kci?soceId=INS000003647&artiId=SJ0000000552&serelId=SER000000001&submCnt=1&indexNo=9> (accessed Dec. 31, 2023)
- [26]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The Report on the Digital Divide 2022, Korea. [cited 2023 march 23]. Available From: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idx=81623&bcidx=25353&parentSeq=25353 (accessed Dec. 10, 2023)
- [27] S. H. Roh, C. S. Kim, J. Kwak, "The Effects of Digital Competence and Digital Assistance on Social Capital and Mediating Effects of Mobile Device Use of Adul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Multi-group Comparison Analysis of the Elderly and Young Adults",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Vol.26, No.2, pp.55-76, 2022.
DOI: <http://doi.org/10.16884/JRR.2022.26.2.55>
- [28] H. J. Lee, S. Han, M. K. Park, "The Effect of Digital Support on the Digital Divide of North Korean Defectors", Journal of Knowledge Information Technology and Systems, Vol.17, No.1, pp.131-142, 2022.
DOI: <https://doi.org/10.34163/jkits.2022.17.1.013>
- [29] J. S. Lee, H. Y. Park, "The Effects of Digital Supporter Experiences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Digital Utilization and Social Capital",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24, No.9, pp.2047-2057, 2023.
DOI: <https://dx.doi.org/10.9728/dcs.2023.24.9.2047>
- [30] A. F. Hayes,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ress, 2013.
- [31] B. S. Kim, J. H. Ko, "A Study on the Impact of Digital Supporter on Digital Social Capital in the Elderly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Digital Usage", Discourse and Policy in Social Science, Vol.13, No.2, pp.27-57, 2020.
DOI: <https://doi.org/10.22417/DPSS.2020.10.13.2.27>
- [32] H. Kwo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Digital Information Competency and E-commerce Utilization Level: Focusing on Young People, Middle Aged, Senior Citizen", The e-Business Studies (Tebs), Vol.23, No.6, pp.41-57, 2022.
DOI: <https://doi.org/10.20462/tebs.2022.11.23.6.41>
- [33] Ministry of Justice,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Ministry of Justice, c2018 [cited 2018 March]. Available From: <https://www.moj.go.kr/immigration/1518/subview.do> (accessed Dec. 31, 2023).
- [34] C. N. Suh, "Research on the problems faced by families with immigrant spouses and their possible solutions",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Vol.42, No.1, pp.103-126, 2010.
DOI: <https://doi.org/10.35557/trce.42.1.201003.005>
- [35] H. J. Kim, "Age-related differences in the digital divide: Focusing on married female immigrants", Human Ecology Research, Vol.56, No.3, pp.217-232, 2018.
DOI: <https://doi.org/10.6115/fer.2018.017>
- [36] J. S. Kim, "Issues and new direction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Law Review (korlaw), Vol.21, No.2, pp.31-56, 2021. [cited 2021 june 12]. Available From: <https://koreanlaw.jams.or.kr/po/volisse/sjPubsArtiPopView.kci?soceId=INS000001533&artiId=SJ0000002114&serelId=SER000000001&submCnt=3> (accessed Dec. 31, 2023)
- [37] Y. S. Kang, M. H. Lee, "A Case Study of the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Immigrant Mentor Education'",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Vol.16, No.3, pp.5-29.
DOI: <https://doi.org/10.14431/jms.2023.10.16.3.5>

서 현 빈(Hyun-Bin Seo)

[정회원]



- 2005년 2월 : 경기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 2017년 2월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 2023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재학

<관심분야>

사회복지법제, 다문화사회복지

박 소 연(So-Youn Park)

[정회원]



- 1999년 5월 : 위스콘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 2010년 10월 : 뉴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중독문제, 정신건강, 사회복지실천